

IV. 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의 의의

1. 북경 세계 여성대회의 선언문과 행동강령

북경 세계 여성대회 선언문의 요지는

85년 채택한 나이로비 여성 발전 전략의 국기적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또한 군비삭감 등을 통한 평화구축을 위해 핵실험 금지조약 등 이행을 촉구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및 각국 정부에 의한 여성의 완전한 인권 향유 보장을 촉구하였으며 그리고 국가정책과 사업에 여성 관련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북경 세계대회의 행동강령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경 세계 여성대회의 행동강령에서 주요 관심분야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빈곤의 지속적·가중적 부담,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불평등하고 부적당한 접근, 보건 및 관련서비스에의 불평등한 접근, 여성에 대한 폭력, 무력갈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경제구조와 정책 및 생산활동에의 참여 불평등, 정책결정 및 권력배분 과정에의 참여 불평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기구의 미흡, 여성인권의 존중 부족 및 촉진·보호 미흡,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고정적 역할관념과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의 불평등한 접근, 자연자원관리 및 환경보전에 있어서 남녀불평등, 여자이런이에 대한 차별 및 권리침해 등이다.

2. 북경 세계 여성대회 비정부 포럼 활동 보고

북경 세계 여성대회 비정부(NGO) 포럼은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관한 주제는 이번 포럼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포럼에 참가한 2백여명의 여성장애인은 포럼장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부터 목소리를 높여 연일 정거시위를 벌였으며,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여성장애인들은 비정부포럼 기간 동안 권리로서 “비정부기구 포럼장의 편의시설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포럼장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었으며 휠체어 대여로 돌려 받기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프레스 센터를 찾아가 각국 언론을 향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이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또한 비정부(NGO) 포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억압받고 시달려온 여성들을 위해 “평등·평화·발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책방향을 제시했고, 정부간회의(GO)가 주도해 온 다른 회의 때와는 달리 민간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간 회의의 “행동강령”에 크게 반영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3. 북경행동강령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여성장애인의 인권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활동이나 비정부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항을 선언문이나 ‘행동강령’에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나이로비 세계 여성대회의 특별관심분야에서 한 조항을 차지한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오히려 10년 후인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성장애인이 하나의 계층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여성이라는 계층에 매몰되면서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경 세계 여성대회의 역할이 지난 10년간의 여성의 문제들을 각 국가가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를 평가하고 질책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별한 분야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장애인 분야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한국정부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성장애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무관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과 장